



박소현의 섹.시.토.크

나의 심년지기 친구 S는 매우 심심한 입맛을 가진 삼십대 중반의 남성이다. 국도 된장을 조금만 풀어 심심하게 끓인 시래기 국이나 최소한의 간만 한 무국, 감자 국 같은 것을 좋아한다. 이에 비해 그의 아내는 입맛이 정반대이다. 눈물이 속 빠질 정도로 맵거나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 신음식, 한 젓가락 먹고 나면 밥을 두 숟가락은 먹어야 균형이 맞는 짠 젓갈류에 열광하는 식성이 있다.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철년을 함께 살았으니 그동안 이를 부부의 밤상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을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다.

그래도 먹고 사는 중요한 문제라 어쩔 수 없이 타협점을 찾기는 찾았다. 국은 남편을 배려해 최대한 신겁게 끓이되 대신 외식은 아내가 좋아하는 식성을 우선시 할 것, 그리고 반찬은 두 사람의 식성을 정확히 반씩 따르는 것이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부부에게는 식성 못지않게 중요한 또 다른 갈등 상황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이 선호하는 잠자리 패턴 역시 입맛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었다.

S는 심심한 입맛만큼 평범하고 심심한 색스를

선호하는데 비해 아내는 강한 입맛만큼 자극적 인 색스를 원했다. 물론 그런 아내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S가 이만하면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는 순간에도 아내는 간이 덜 된 국을 떠먹는 것처럼 맛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기 일쑤였다.

S는 절망했다. ‘이것은 과연 내 능력 밖의 일인가?’



가? 내가 남들보다 정력이 많이 부족한가? 수술이라도 해야 하나?’

아내의 떨떠름한 표정을 대할 때마다 자신에게 수없이 물기도 했을 뿐더러 때론 ‘맛있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나는 경험이 많아야 실력도 향상될 것이 아닌가? 이참에 팔도 여자

기행이라도 떠나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위험하고 어리석은 생각까지 했을 정도였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순해지고 저절로 심심한 음식을 선호하게 된다는데 왜 아내는 여전히 이십대의 입맛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신을 주눅 들게 하는지 원망스러우며, 철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

굉장한 밥을 보낼 수 있다고 했다. 그 말은 곧 그동안 그들 부부의 섹스패턴이 어떠했는지를 여실히 증명해 주는 고백이기도 했다.

그동안 S의 노력은 워낙까, 맵게 한다고 고춧가루만 들입니다 봇고, 짜게 한다고 소금만 계속 부은 행위였지도 모르겠다. 모든 요리에는 제대로 맛을 내기 위한 적절한 양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잠자리에서도 자극을 주기 위한 적절한 행위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것이 정력의 문제일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태도나 표현의 문제일 때가 더 많고, 때로는 작은 도구의 사용이 어떤 감칠맛 나는 재료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때도 있다.

S는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다고 한다. 아내가 원하는 자극이란 것이 대단한 노력과 봉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를 원하는데 있다는 것을 말이다.

식성이야 몇십 년을 고수한 어떤가? 그러나 잠자리만은 몇 년간 같은 패턴을 고수한다는 것이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다. 몰라도 한번 시도해 보면 그만이다. 이번에는 손목을 묶었으나 다음에는 무언가 묶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S네 부부는 조금씩 진화(?)할 것이다. 퓨전은 요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연애칼럼리스트>

“자극적 입맛을 원하는 아내를 위해 오늘밤 손목 한번 묶어봐”

겠다고 토로하는 S, 그에게 나는 이렇게 조언해 주었다.

“아내의 손목을 묶어 봐.”
얼마 뒤에 만난 S의 얼굴은 한결 밝아져 있었다. 지난 7년 동안 아내가 그렇게 흥분하는 것을 처음 봤다고 했다. 그냥 손목만 묶었을 뿐인데도

수입차 알리온, 아반떼보다 싸다는데…

‘알리온’이란 자동차가 네이션들의 클리 세례를 받았다. 알리온은 토요타 자동차의 준중형 세단인 알리온이 비슷한 크기의 현대자동차의 아반떼에 비해 성능은 더 좋고 가격이 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부터다.

단순 가격을 비교한 경우 알리온 1.5리터 고급형(CVT·무단변속기)의 일본 소비자는 185만원 500엔(1천438만원)인데 비해 아반떼 1.6리터 프리미어(자동 4단) 모델의 국내 가격이 1천620만원으로 비싸다는 것이다. 또 자동차 공인연비도 알리온이 리터당 18km, 아반떼는 리터당 13.8km로 차이가 크다는 것.

이 같은 보도가 나온 뒤 인터넷에서는 “한국의 자동차 값이 지나치게 비싸다”, “빨리 알리온을 수입해라, 당장 산다”는 등 글이 잇따라 올랐고 알리온이 어떤 차인지 검색하는 네이션도 많았다.

이른바 ‘O양 비디오 사건’으로 연예계를 떠났던 텔레비전 오현경이 10년만에 SBS 주말 드라마 ‘조강지처 클럽’을 통해 방송에 복귀한다는 소식도 관심을 모았다. 오현경은 현재 다섯 살 된 딸을 두고 있다.

‘광수 생각’의 인기 만화가 박광수씨가 SBS의 ‘완벽한 이웃을 만나는 법’이라는 드라마에서 의처증 남편으로 연기자로 데뷔한다는 소식도 화제가 됐다.

또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수많은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젊은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카메라에 담는 ‘몰카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기사나 동영상은 찾는 네이션도 많았다.

이와 최근 SBS 드라마 ‘불량커플’에 출연했던 배우 신은경(34)이 “남편과의 신뢰의 끊이 끊어졌다”며 이혼을 결심했다는 소식, 개그맨 김정렬(45)씨가 집안 문제를 이유로 혈중 알코올농도 0.257%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는 내용도 검색어에 올랐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연기자로 데뷔하는 ‘광수생각’의 화가 박광수씨.

뼈 아픈 두점머리 5보(67~86)

白 박정규 5단
(KT전남본부)
黑 김광식 5단
(주)송림

우변 백 대
흑 67로는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일
마가 쉽게 위험
단은 ‘참고도’의 흑 1로 늘고 보아야
에서 빠져나오
했다. 이곳을 두지않고는 바둑이 안된다.
자 자신감을 얻
다. 김광식 5단은 백 2로 두어오는 수
는 박정규 5단
를 겨눴으나 이때는 3 이하로 강하게
이 백 스로 밀
반발하고 17까지 바꿔치기를 하면 된다.
여간 수가 강력
한 승부수다.
한 승부수다.

김광식 5단
도 승부처임을 절감하고 장고를 거듭
했으나 결국 흑 67로 쓰라린 후퇴를
하고 만다. 담력싸움에서 승리한 전
리풀치고는 백 68이 천히의 두점머리
리로 넘나기 기분좋은 점이다. 이 한
수로 인해 중앙전투의 주도권은 완전히
백에게 넘어갔다.

〈참고도〉

KYOBO 교보생명

바둑 소식

제3회 중한배 12일 대만서 개막

대만이 주최하는 제3회 중한배 세계
바둑선수권대회가 오는 12일부터 17
일까지 타이베이에서 열린다. 한국과
일본, 대만 3개국에서 프로기사 16명
이 출전하는 미니 국제기전인 중한배
는 제1회대회 때 박영훈 9단, 제2회대회
때는 최철현이 각각 우승했다.

이번 대회에는 시드를 받은 최철현,
이세돌 외에 이창호, 박영훈, 조한승,
박정상 등 6명의 국내 상위 랭커들이
출전해 세 번째 우승컵을 노린다. 대만
에서는 6명, 일본에서는 4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16강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세계 최고의 높이를 자랑
하는 타이베이 101 빌딩에서 열리며 우승
상금은 약 5천만원이다.

76. 메이저리그의 ‘살아있는 전설’인 이 선수가 마침내 미국 야구사를 새로 썼습니다.

이 선수는 8일 미 프로야구 워싱턴 내셔널스와 경기에서 개인 통산 756회째 훌러포를 쏘이어올려 이 부문 최고 기록 보유자였던 행크 아론의 종전 기록을 31년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1986년 데뷔해 22시즌 만에 이룬 대기록입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배리 본즈 ②이승엽 ③최희섭 ④박진호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 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0일(음력 6월 28일 丙子)

子 36년생 육심을 내지 마라 좋은 날이다. 48년생 믿는 도끼도 세심하게 살펴보라. 60년생 합자 동업 신규부지는 흔들리거나 겪는다. 72년생 경건이 상수하니 겹친을 받아내면 경사로운 운세다. 행운의 숫자 : 08, 33

丑 37년생 어려움은 조금만 노력하면 해결되리라. 49년생 겉으로만 어려울 뿐 행동하면 쉬우리라. 61년생 사랑은 있으나 만날 수 없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73년생 모든 일은 순조롭고 내실 있게 드리기 한다. 85년생 실속 있게 혼자하라. 행운의 숫자 : 05, 25

寅 38년생 생활이 순줄하니 괜한한 하루다. 50년생 직장에서 신중하게 처신하고 경쟁에서 회복 하라. 62년생 틀쁜 계획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다. 74년생 자신을 낮추면 오히려 자신이 떠받으리라. 행운의 숫자 : 22, 35

卯 39년생 협력자를 만나서 도움을 받는다. 51년생 만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하니 선택을 잘하라. 63년생 이웃을 살펴보라. 75년생 이성 보다 친구 만나기 좋은 날이니 우정을 쌓으라. 행운의 숫자 : 02, 26

辰 40년생 지출을 가장과 의논하라. 52년생 여러 가지 고민이 나타날 수 있으니 분수를 지켜라. 64년생 어려움은 있으나 친인척의 범증으로 걱정이 생긴다. 76년생 빛밖의 활동은 조심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0, 27

巳 41년생 가정과 마음의 중증한 고통이 있을 수 있다. 53년생 주변의 기관과 허락된 문서를 조심하면 대운은 있다. 65년생 부부간의 이해있는 대화와 자녀를 살펴보라. 77년생 집안의 평화는 잘아 한다. 행운의 숫자 : 04, 45

午 42년생 자녀가 떠나거나 살아야 할 경우가 생기지만 좋은 일이다. 54년생 오늘 하루는 최근보다는 내근을 하라. 66년생 진행하던 일이 순조롭게 주변의 도움을 받는다. 78년생 눈을 조급만 낮춰서 현실을 보다. 행운의 숫자 : 15, 36

未 43년생 호수를 배를 띠거나 행운은 반반이다. 55년생 신사나 문서에 눈물 날과 두렵다. 67년생 과도한 투자만 없으면 결과는 솔솔 하리라. 79년생 오랫동안 기다리던消息이 온다. 행운의 숫자 : 09, 38

申 44년생 익 일이 괴로우니 다시한번 살펴보라. 56년생 가정이 소란하니 조용히 해결하라. 68년생 처음에는 당황하나 흥미로운 변화로 변하는 형상이다. 80년생 허락된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으니 현실로 돌아오라. 행운의 숫자 : 13, 26

酉 45년생 미움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 사랑으로 보내라. 57년생 해동은 일은 먼저처럼 날리고 화해하려면 지내라. 69년생 다른으로 미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고 또 신중 하라. 81년생 연인과 접촉이 된다. 행운의 숫자 : 06, 37

戌 46년생 겉으로는 삶이하나 속으로는 좋아하는 사람이나 생긴다. 58년생 자신과 가정, 직장사이에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 70년생 생 보금자리를 매진하려고 사람이 보인다. 82년생 오늘은 밖에서 자동차를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19, 29

亥 47년생 새로운 일에 생기고 협조자가 달려온다. 59년생 우두머리가 돌아오니 선택을 잘하라. 71년생 의외의 得財와 집안의 안정이 있다. 83년생 독신자는 새로운 연인을 만날 기회니 준비하고 기다리라. 행운의 숫자 : 07, 40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틱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967>

Anything to declare?
신고하실 것 있습니까?

A :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B : Yes, I have a camera.
A : A gift?
B : Yes.
A : Let me look at the receipt, then.
B : Here you are.

A : 신고하실 것 있습니까?

B : 네,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A : 선물입니까?

B : 네.

A : 그러면 영수증을 보여 주십시오.

B : 여기 있습니다.

* 이것들은 모두 당신 개인 물품들입니까?

= Are they all your personal effects?

* 그 가방을 열어 보십시오.

= Please open that suitcase.

* declare : 신고하다

오하요우 니혼고 <967>

自分(じぶん)で作(つく)ってみました。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A: 肉(にく)まんじゅうですか。うますうですね
B: そうでしょう。自分(じぶん)で作(つく)ってみました。
最近(さいきん)これを作(つく)るのが趣味(しゅみ)なんですよ。
A: 食(た)べていいですか。お腹(なか)ペコペコです。
B: いいですよ。

A: 고기만두잖아요. 맛있겠네요.
B: 그렇죠?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요즘, 이거 만드는게 취미예요.
A: 먹어도 돼요? 배가 많이 고파요.
B: 그러세요.

肉(にく)まん: 고기호빵, 만두
焼(や)き餃子(ぎょうざ): 야끼고자, 군만두
うまそう: 맛있을 거 같다

니하오 쟁구워 <157>